

한·중·일 기본 형용사 대조 분석

— 초급 어휘를 중심으로

김영민 · 백이연*

<목 차>

1. 서론
2. 연구 대상과 방법
 - 2.1 한중일 형용사의 특징과 선행 연구
 - 2.2 연구 방법
3. 결과와 고찰
 - 3.1 한중일 세 언어 모두 초급 단계인 어휘
 - 3.2 어휘 등급 혹은 표현 형식이 불일치한 경우
4. 결론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은 오랜 기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으며,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상호 간의 영향관계는 더욱더 긴밀해 지고 있다.

실제로 한중일 세 나라 국민은 여행, 유학, 취업, 결혼 이민 등으로 상대 두 국가를 방문하거나 거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 국가의 언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등의 확산으로 이웃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취미 등으로 상대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도 늘고 있다.

* 고려대학교 BK21Plus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 연구교수.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고, 일본어 학습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역시 한국과 중국이며, 중국어 학습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상위권에 속한다.¹⁾

이처럼 한중일 삼국에서는 상대 두 국가에 대해 깊은 관심, 혹은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상대 언어를 학습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삼국이 ‘한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언어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과 공유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에 기초한 많은 어휘를 공유하므로 상대 언어를 학습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현재 삼국에서 제작되어 교육에 쓰이는 초급 회화 교재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한중일 삼국이 공통적인 한자 혹은 의미의 어휘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 | |
|------------------|-------|
| (1) a. 여기에서 멀어요? | (한국어) |
| b. 離這兒遠嗎? | (중국어) |
| c. ここから遠いですか? | (일본어) |

예문 (1)은 삼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멀다’ 혹은 ‘遠’, ‘遠い’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거리의 원근을 묻는 표현으로, 형용사인 ‘멀다’, ‘遠’, ‘遠い’는 그 의미와 용법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처럼 세 언어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나, 때로는 개별성이 두드러진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상위 8개국 가운데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 6개국을 제외한 두 국가는 중국(2위)과 일본(5위)이다. 한편,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1위가 중국인으로 58.6%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은 2위는 일본인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3년 제일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과 한국인이 각각 1위와 2위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제중 유학생 역시 한국이 1위, 일본이 3위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http://www.moe.go.kr/web/100088/site/contents/ko/ko_0352.jsp?selectId=41007), 일본학생지원기구(http://www.jasso.go.jp/statistics/intl_student/data13.html),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5987/201303/148379.html>) 참고.

- (2) a.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한국어)
 b. 他比我大。 (중국어)
 c. 彼は私より年上だ。 (일본어)

위의 예(2)와 같이 '나이가 많다'는 표현을 할 때 한국어는 형용사 '많다'를, 중국어는 형용사 '大'를 쓰고, 일본어의 경우는 형용사가 아니라 '年上'이라는 명사로 해당 의미를 표현한다.

이상의 예를 통해 한중일 삼국어는 유사한 표현을 하는데 있어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언어별로 각기 다른 어휘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품사별로 보았을 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나 행위, 동작의 과정을 나타는 동사는 그 지시대상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므로 범언어적으로 보편성이 관찰된다. 이에 비해, 형용사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묘사하거나 사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므로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여 그 언어 사용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을 담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세 언어의 초급 단계 형용사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외국어 교수와 교재 제작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웃한 세 언어 속에 반영된 각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2.1 한중일 형용사의 특징과 선행 연구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주체의 성질, 상태, 감각, 모양 등을 나타내는 품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개별 언어별로 그 통사적 특징과 의미 기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어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동사와 더불어 용언으로 기능하며, 기본형 또한 ‘-다’가 되므로 동사와 기능적,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렵다.²⁾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별 어휘의 형용사-동사 판별은 학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³⁾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명령형이나 ‘고 싶다’를 붙여보거나 관형어로 쓰일 때 현재형 ‘-는’을 붙일 수 있으면⁴⁾ 동사로 보고, ‘-는다/-다’와 결합하지 못하면 형용사로 본다.⁵⁾

일본어의 형용사는 형태적인 면에서 원형과 관형형이 ‘い’로 끝나는 ‘이형용사’, 원형이 ‘だ’, 관형형은 ‘な’로 활용하는 ‘나형용사’⁶⁾의 두 가지가 있다. 즉, 중국어나 한국어에 비해서 그 형태적 특징이 뚜렷하다. 단, ‘나형용사’는 한자어+だ의 형태를 취하는 일이 많고, 이 경우 한 어근이 여러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失禮’는 명사지만, ‘失禮だ·失禮な’는 형용사, ‘失禮する’는 동사가 된다.

중국어는 유형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형태 특징으로는 품사 구분이 어려우며, 의미 기능에 따라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형용사와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형용사, 그리고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별사(區別詞)⁷⁾로 분류된다. 형용사의 가장 원형적인 구성원인 성질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문장의 용언으로 기능을 한다.⁸⁾ 한편, 상태형용사는 대상 주체의 상태묘사가 중심 기능이므로, 부정부사나 정도부사 등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2) 유현경(2003:188-9) 참고.

3) 김정남(2005: p15-25) 참고.

4) 예를 들어, ‘이 옷이 어울리다’의 경우 ‘이 옷이 어울리고 싶다’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어울리는 옷’이 자연스러우므로 동사로 판별할 수 있다.

5) 유현경(2003:190) 참고.

6) 전통적 학교문법에서는 ‘형용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용 자료를 사용하므로 일본어교육의 용어인 ‘나형용사’로 정의한다.

7) 구별사는 문장의 술어로 기능할 수 없기에 비용언형용사(非謂形容詞)라고도 한다. (朱德熙, 1982/1998) 참고.

8) 형용사는 문장의 용언 외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로 기능하며, 때로는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형용사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형태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원형 형태가 같은 반면, 일본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원형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한중일 삼국어 형용사는 관형어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사와 더불어 용언으로 기능하여 논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의 형용사가 단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특정 동사의 보어로 서술어를 구성한다는 점과는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구어와는 대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형용사 대조 연구는 주로 한-일, 중-일, 한-중과 같이 두 언어 간 대조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에서의 한일 양국 형용사 대조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은숙(2012)으로, 한일 양어의 형용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과 의미·용법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미숙·송정식(2014)은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 분포를 분석하는 가운데 한일 양어 형용사의 출현 양상을 언급하였으며, 그밖에 손경호(2007)는 미각형용사에 대한 한일어를 대조하였다.

한국에서의 한중 형용사 대조 연구는 일부 석사학위 논문 외에, 근년 들어 조윤경(2009), 주송이(2011), 광일성(2012), 권희정(2014) 등이 색채형용사와 미각형용사, 후각형용사, 공간형용사 등과 같이 형용사의 하위부류에 대한 개별적인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형용사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한중 양어는 주로 한국 학생의 중국어 형용사 오류 분석이나 형태적 특징 대조와 관련된 연구나 미각형용사, 촉각형용사 등과 같은 형용사 하위부류에 대한 의미 대조가 대부분이다. 중일 양어 역시 중일 동형형용사에 대한 오류 분석이나 중·일·영 형용사의 의미 비교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실정이다. 한편, 일본에서의 한-일 혹은 중-일

형용사 대조 연구는 주로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한 대조, 동형 한자 사용 문제, 혹은 품사 획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중일 삼국에서의 형용사 대조 연구는 주로 두 언어 간의 의미 혹은 형태 분석이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오류 분석 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 가운데에는 한중일 삼국어의 형용사를 동시에 비교·대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중일 삼국의 학습자가 상대 두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모어와 목표 언어 어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제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 속에 내재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공인어학시험의 어휘 목록 가운데에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⁹⁾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우 공개되어 있는 TOPIC 어휘 목록 초급과 중급, 일본어는 (구)JLPT의 4급과 3급, 중국어는 신 HSK의 1, 2, 3급¹⁰⁾의 형용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어휘목록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3) 한중일 공인어학 시험 어휘 목록의 성격

- ① TOPIC(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목록은 초급 1561개, 중급 2870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상급 어휘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 ② 신 HSK(漢語水平考試)의 어휘는 1급-6급 전체 403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초급에 해당되는 1급, 2급, 3급 어휘가 600여개, 중급에 해당되는 4급, 5급 어휘가 1900여개이다.
- ③ 구 JLPT(일본어능력시험)의 어휘 목록은 1급-4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9) 공인어학시험에서 선정되는 어휘는 공인성을 갖춘 어휘 가운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본어휘, 학습, 업무 사회생활과 관련된 상용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2008) 참고.

10) 중국어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구 HSK의 甲급 어휘와 乙급 어휘를 참조하였다.

가운데 초급에 해당되는 4급과 3급 어휘는 1400여개이고 중급에 해당되는 2급 어휘가 3400여개이다.¹¹⁾

이상의 세 목록에서 각 언어의 초급 형용사를 추출하여 고찰한다. 다만 언어 별로 급수의 구분 방식 및 단어 수에 편차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였다.

- 1단계: 한국어 어휘 목록에서 추출한 초급 형용사 가운데 인사말과 관용어를 제외한 후, 이에 대응되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어휘를 찾아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도 동일 단계 대상 어휘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초급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휘에 대해서는 중급 혹은 고급 단계에서 검색, 확인하여 등급을 표시한다.
- 2단계: 일본어 초급 어휘 중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에 대해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를 찾아 해당 어휘의 등급을 표시한다.
- 3단계: 중국어 초급 어휘 중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의 한국어와 일본어 대응 어휘를 찾아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어휘 목록을 완성한다.
- 4단계: 3단계에서 완성한 어휘 목록의 어휘를 '속성류', '판단류', '감각류', '감정류'의 네 부류¹²⁾로 구분하여 정리한다.¹³⁾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 언어의 초급 형용사 어휘 항목을 구축하고 이를 다시 네 부류로 분류하였다. 어휘 항목 가운데에는 한중일 세 언어 모두 초급에 속하는 어휘뿐 아니라 세 언어 가운데 한 언어에서라도 초급에 속한 경우는

11) JLPT는 198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0년 이후 5급으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개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므로, 어휘나 문법 항목을 정리한 출제 기준어휘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구)JLPT를 기준으로 한다.

12) '속성류'는 대상이 갖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수치가 가능한 특징을 묘사한 부류를 가리키고, '판단류'는 주체가 일정한 근거나 논리로 대상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부류이다. '감각류'와 '감정류'는 주체의 주관적인 느낌을 묘사하는 부류로, 주체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즉각적 혹은 반사적으로 느끼는 감각은 '감각류', 인간 마음의 감성적, 심리적인 느낌은 '감정류' 형용사이다. 고은숙(2012), 김정남(2006) 참고.

13) 그러나, 형용사의 특성상 부류 별로 뚜렷하게 분류되기는 힘들며 문맥에 따라 한 어휘의 범주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상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모두 포함시켜 해당 어휘가 상대 두 언어에서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와 고찰

2장에서 설정한 연구 방법에 따라 목록화된 어휘의 분포를 보면 한중일 세 언어의 초급 형용사는 한국어 96개, 중국어 72개, 일본어 104개이다. 초급 형용사에 대응되는 상위 등급 어휘는 한국어가 29개, 중국어가 61개, 일본어가 22개로, 초급 어휘와 이와 관련된 중·고급 어휘를 모두 합하면 한국어 125개, 중국어 133개, 126개로 전체 검토 대상 어휘는 384개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본 논문의 분석 대상 형용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합계
초급	96	72	104	272
중·고급	29	61	22	112
합계	125	133	126	384

이상의 어휘 가운데 세 언어 모두 초급 단계인 어휘쌍은 48쌍이었다. 두 언어에서만 초급 단계인 형용사는 44쌍으로, 이 가운데 한중 공통 12쌍, 한일 공통 24쌍, 중일 공통 8쌍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간에 공통되는 어휘가 비교적 많았다. 한편 한 언어에서만 초급단계에 속하는 어휘는 40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어 12개, 중국어 4개, 일본어 24개로 일본어의 초급 형용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대응되는 어휘가 초급단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부

분 바로 윗 단계인 중급 단계에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아 한중일 세 언어 초급 단계 형용사는 등급 분포나 의미 기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 한중일 세 언어 모두 초급 단계인 어휘

어휘 목록 분류 결과, 한중일 삼국어 모두 초급에 해당되는 형용사는 전체 132개 항목 가운데 48쌍, 144개 어휘였다. 수집된 어휘를 '속성류', '판단류', '감각류', '감정류'로 구분하여 <표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 한중일 세 언어 모두 초급 단계인 형용사

의미류	형용사 용례(한/중/일 순)
속성류 21	가깝다/近/近い, 멀다/遠/遠い, 크다/大/大きい, 작다/小/小さい, 높다/高/高い, 낮다/低/低い, 많다/多/多い, 적다/少/少ない, 길다/長/長い, 짧다/短/短い, 빠르다/快/速い, 느리다/慢/遅い, 늦다/晚/遅い, 젊다/年輕/若い, 비싸다/貴/高い, 싸다/便宜/安い, 파랗다/藍/青い, 노랗다/黃/黄色い, 빨강다/紅/赤い, 까맣다/黑/黒い, 하얗다/白/白い
판단류 18	좋다/好/よろしい・いい, 나쁘다/壞/悪い, 괜찮다/沒關係/大丈夫だ, 간단하다/簡單/簡單だ, 쉽다/容易/易しい, 재미있다/有意思/おもしろい, 재미없다/沒意思 ¹⁴⁾ /つまらない, 같다/一樣/同じだ, 건강하다/健康/元氣だ, 귀엽다/可愛/かわいい, 예쁘다/漂亮/きれいだ, 유명하다/有名/有名だ, 이상하다/奇怪/おかしい, 깨끗하다/乾淨/きれいだ, 조용하다/安靜/靜かだ, 급하다/急/急だ, 바쁘다/忙/忙しい, 어렵다/難/難しい
감각류 6	춥다/冷/寒い, 덥다/熱/暑い, 차갑다/涼/冷たい, 아프다/疼/痛い, 맛있다/好吃/おいしい・うまい, 어둡다/黑/暗い
감정류 3	기쁘다/高興/嬉しい, 슬프다/難過/悲しい, 즐겁다/快樂/楽しい

14) '재미있다', '재미없다'에 해당되는 '有意思'와 '沒意思'는 신 HSK 어휘에 수록되어 있지 않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급 어휘쌍 가운데 속성류 형용사의 수량이 가장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깝다/멀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길다/짧다’, ‘느리다/빠르다’ 등과 같은 시공간과 관련된 개념은 삼국어에 공통되며¹⁵⁾, 검정, 하양,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기본적인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한중일 세 언어 모두 초급 어휘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류 역시 인간의 기본감정인 ‘희로애락’ 중 ‘기쁘다(喜)’, ‘슬프다(哀)’, ‘즐겁다(樂)’가 세 언어의 초급 형용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상과 같이 전체 초급 형용사 어휘목록 가운데 48쌍, 144개 어휘(전체 초급 형용사의 53%)가 동일하게 초급 단계에 속한다는 것은 이들 어휘가 세 언어에서 공통된 기본 개념어로 공간과 시간을 파악하는 방식의 보편성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의 유사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의미 항목과 용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본어에서는 물리적인 높이와 대상의 가격이 고가임을 형용할 때 모두 ‘高い’로 표하는데¹⁷⁾,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높다’와 ‘비싸다’라는 형용사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きれいだ’는 한국어나 중국어의 ‘깨끗하다(乾淨)’와 ‘예쁘다(漂亮)’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 (4) a. 琵琶湖の水はきれいです。
비와호수의 물은 깨끗합니다.
琵琶湖の水很乾淨。
- b. 櫻がきれいです。
벚꽃이 예쁩니다.
櫻花很漂亮。

으나, 구 HSK에 단독 항목으로 수록된 바 있으며, 『現代漢語詞典』등의 각종 어휘 사전에도 개별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를 형용사에 포함시켰다.

15)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는 물리·공간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16) 반면, ‘화나다(怒)’는 한중일 세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동사로 분류된다.

17) 실제로 일본어 초급 교재에는 아래 예문과 같이 ‘高い’의 두 용법이 같이 등장한다.

a. 富士山は高いです。(후지산은 높습니다.)

b. 日本の食べ物はおいしいですが、高いです。(일본음식은 맛있지만 비쌉니다.)

위의 예문 (4a)와 (4b)는 모두 ‘きれい’가 쓰였으나,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각각 ‘깨끗하다/예쁘다’와 ‘干淨/漂亮’과 같이 상이한 형용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어의 경우 색채를 나타내는 ‘黑’는 ‘검다’라는 색채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어둡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 (5) a. 他皮膚很黑。
그는 피부가 검다.
彼は肌が黒い。
- b. 外面很黑, 別出去。
밖이 어두우니, 나가지 말아라.
外が暗いから、出かけないで。

위의 예문 (5a)와 (5b)는 모두 ‘黑’가 쓰였으나,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각각 ‘검다/어둡다’와 ‘黒い/暗い’과 같이 상이한 형용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기본 형용사 가운데 하나인 ‘괜찮다’의 경우,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¹⁸⁾에서 검색해 보면 ①‘(무엇이)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 ②‘(무엇이 어찌하여도)꺼려지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 ③‘(사람이나 사물이)별 탈이나 이상이 없다’, ④‘(살림이나 생활이)경제적으로 별로 부족하지 않다’와 같은 네 가지 의미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괜찮다’에 대응되는 일본어인 ‘大丈夫だ’는 ②과 ③의 의미항목에만 대응되고, 중국어의 경우는 ①에는 ‘不錯’, ②에는 ‘沒關係’, ③과 ④는 ‘可以’가 대응된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 세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초급에 속하는 형용사가 전체 초급 형용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어휘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들 어휘의 기본 의미 항목이나 용법이 완전히

1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참고.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어와 목표 언어 간의 어휘 의미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목표 언어 어휘의 습득 및 개념 구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급 어휘에 대한 교수 혹은 교재 제작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3.2 어휘 등급 혹은 표현 형식이 불일치한 경우

한중일 세 언어 가운데 두 언어에서만 초급 단계인 형용사는 44쌍으로 이 가운데 한중 공통이 12쌍, 한일 공통이 24쌍, 중일 공통이 8쌍이었다. 또한 한 언어에서만 초급 단계에 속하는 어휘는 40개 항목으로, 한국어 12개, 중국어 4개, 일본어 24개였다. 본 절에서는 두 언어에서 공통으로 초급인 어휘쌍과 한 언어에서만 초급인 어휘들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3.2.1 두 언어에서 초급 단계인 어휘

한중일 세 언어 가운데 두 언어에서만 초급에 속하는 형용사는 44쌍 91개 형용사(각 언어의 중·고급에 해당되는 43개 형용사 제외)로,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3>와 같다.

<표3> 한중일 세 언어 중 두 언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형용사

의미류	한중 초급	한일 초급	중일 초급
속성류 한중3 한일6 중일3	어리다/小/幼い(중급), 맑다/晴/晴れる(중급 동사), 흐리다/隱/曇る(중급 동사)	가볍다/輕(중급)/輕い, 무겁다/重(중급)/重い, 넓다/寬(중급)/廣い, 좁다/窄(중급)/狭い, 두껍다/厚(중급)/厚い, 얇다/薄(중급)/薄い	이르다(x)/早/早い, 낡다(중급)/舊/古い, 가늘다(중급)/細/細い
판단류	똑같다/相同/そっくり	위험하다/危險(중급)/危	특별하다(중급)/特別/

<p>한중6 한일6 중일3</p>	<p>だ(중급), 다르다/不同/異なる(중 급동사), 친절하다/熱情/親切だ (중급), 편하다/方便・舒服/便 利だ(중급)・樂だ, 중요하다/重要/重要だ (중급), 친하다/熟/親しい (중급)</p>	<p>ない・危険だ, 안전하다/安全(중급)/安 全だ, 더럽다/臟(중급)/汚い, 힘들다/辛苦(중급)・吃 力(고급)/大変だ, 심하다/嚴重(중급)/酷い , 아름답다/美麗(중급)/美 しい</p>	<p>特別だ, 훌륭하다(중급)/了不起/素晴 らしい・立派 だ, 성실(중급 명사)/認真/眞面目だ</p>
<p>감각류 한중3 한일9 중일1</p>	<p>배부르다/飽/(×), 배고프다/餓/(×), 피곤하다/累/疲れる(중급동사)</p>	<p>맵다/辣(중급)/辛い, 쓰다/苦(중급)/苦い, 맛없다/(×)/まずい, 시끄럽다/吵(중급)/煩い , 따뜻하다/暖和(중급)/暖 かい, 시원하다/凉快(중급)/涼 しい, 뜨겁다/燙(중급)/熱い, 부드럽다/軟(중급)/柔ら かい, 밝다/亮(중급)/明るい</p>	<p>달다(중)/恬/甘い</p>
<p>감정류 한일3 한중1</p>		<p>싫다/討厭(중급)/嫌いだ , 외롭다/孤單(중급)/寂し い, 무섭다/可怕(중급)/怖い</p>	<p>새(관형사)/新/新しい</p>
<p>합계 44</p>	<p>12</p>	<p>24</p>	<p>8</p>

※ 초급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어휘 등급 및 품사를 명기하였으며, 각 언어의 등급표에 없거나 구 형태를 이루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표3>와 같이 한중일 세 언어 가운데 한국어와 중국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어휘쌍이 12개, 한국어와 일본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어휘쌍이 24개, 중국어와 일본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어휘쌍이 8개였다.

수치상으로 볼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가 의미와 등급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듯 보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초급에 해당되고 중국어는 초급이 아닌 24개 어휘쌍 중 대부분(18개)이 바로 윗 등급인 중급(신HSK 4급)에 속하므로,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중국어의 경우 형용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기가 한국어나 일본어보다 다소 늦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중 양어는 초급이지만 일본어만 초급 단계가 아닌 어휘 10개 역시 대부분 일본어 중급(JLPT 2급) 어휘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들 형용사 역시 어휘 등급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일본어에서도 비교적 널리 쓰이는 기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유념할 점은 일본어는 이들 표현이 형용사가 아닌 동사 범주에 포함된 예가 많았는데, 이는 일본어에서는 ‘맑다(晴れる)’, ‘흐리다(曇る)’, ‘피곤하다(疲れる)’를 정태적인 상태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어에서 초급인 ‘어리다’는 일본어는 중급(2급) 어휘이며, 중국어는 초급 어휘에 속하기는 하나 ‘작다’와 같이 ‘小’를 써서 표현한다. 즉, 중국어에서 ‘大小’는 ‘체적이나 면적이 크고 작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도 나타내며¹⁹⁾, ‘그는 나보다 어려요’라고 하는 경우 형용사 ‘小’를 써서 ‘他比我小’라고 표현한다.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작다’와 ‘어리다’가 구분되는 것과 차별되는 특징이다.²⁰⁾

‘배부르다’와 ‘배고프다’의 경우 기본적 생존과 관련된 개념으로, 한국어는 복합어지만 사전에 한 어휘로 등재²¹⁾될 정도로 단일 개념으로 어휘화되었으며, 중국어는 단일 형용사가 존재한다. 한편, 일본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お腹が空いた(배가 비었다) / ‘お腹がいっぱいだ(배가 가득하다)’와 같이 구 형태로 이러한 개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중 양어와 차이를 보인다. 비록 표현 형식에 있어서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본어도 ‘배부르다/배고프다’의 표현은

19) 그밖에 비, 바람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의 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20) 물론 중국어에서 형태소 ‘幼’를 부가하여 ‘幼小’(나이가 어리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어휘는 고급 표현에 해당된다.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참고.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초급 표현이라는 점은 삼국어가 모두 공통되는 부분이다.

판단류에 속하는 ‘편하다’는 ①(‘몸이나 마음이’)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와 ②(‘무엇이 어찌하기에’)힘이 들거나 어렵지 않아 편리하다’는 두 개의 의미 항목을 가지는데²²⁾, 두 의미 항목에 대응되는 중국어와 일본어는 각기 다른 어휘이다. 즉, ①의 의미 항목에는 ‘舒服’와 ‘樂だ’가, ②의 의미 항목에는 ‘方便’과 ‘便利だ’가 대응된다. 또한 중국어의 경우 두 어휘가 모두 초급에 속하지만, ‘舒服’는 용법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便利だ가 중급(2급) 어휘이고, 樂だ는 JLPT 학습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고급 단계 어휘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편하다’의 한중일 의미항목 비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①(몸이나 마음이)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	舒服	樂だ
②(무엇이 어찌하기에)힘이 들거나 어렵지 않아 편리하다	方便	便利だ

이상과 같이 한중일 세 언어의 형용사 가운데 두 언어에서는 초급에 속하고 나머지 언어에서는 상위 등급에 속하는 어휘 분석을 통해 각 언어의 형용사 습득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어휘의 경우는 학습 시기와 표현 형식, 의미 항목 등의 불일치로 인하여 목표 언어를 학습 혹은 교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www.kci.go.kr

2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참고.

3.2.2 한 언어에서만 초급 단계인 어휘

한중일 세 언어 가운데 한 언어에서만 초급에 속하는 형용사는 40개로, 이 가운데 한국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12개, 중국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4개, 일본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24개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한중일 세 언어 중 한 언어만 초급에 해당되는 어휘

의미류	한국어만 초급	중국어만 초급	일본어만 초급
속성류 중3 일6		늡다(중급동사)/老/老いる・老ける(고급 동사), 오래되다(중급)/久/久しい(고급), 키가 작다(x)/矮(x)	깊다(중급)/深(중급)/深い, 얕다(x)/淺(중급)/淺い, 강하다(중급)/强(중급)/強い, 약하다(중급)/弱(중급)/弱い, 굵다(중급)/粗(중급)/太い, 둥글다(중급)/圓(중급)/丸い,
판단류 한9 중1 일12	비슷하다/差不多(중급)/似る(중급 동사), 복잡하다/複雑(중급)/複雑だ(중급), 필요하다/必要(중급)/必要だ(중급), 알맞다/合適(중급)/(x), 잘생기다/英俊(중급)/ハンサムだ(중급), 멋있다/帥(중급)/(x), 굵다(x)/(x), 부지런하다/勤奮(중급)/勤勉(고급), 착하다/善良・乖(중급)/(x)	분명하다(중급)/清楚/明らかだ・明確だ(중급)	튼튼하다(중급)/結實(중급)/丈夫だ, 굉장하다(중급)/厲害(중급)/すごい, 바르다(중급)/正确(중급)/正しい, 잘하다(초급동사)/能干・熟練(중급)/上手だ, 서투르다(중급)/生疏(고급)/下手だ, 안되다(중급)/(x)/だめだ, 소중하다(중급)/寶貴(중급)/大切だ・大事だ, 자세하다(중급)/仔細(중급)/細かい, 한가하다(중급)/空閑(중급)/暇だ, 번화하다(x)/熱鬧(중급)/賑や

			くだ, 무리다(x)/勉强・不合理 (중급)/無理だ, 상냥하다(x)/溫柔(중급)/優し い
감각류 한3 일1	시다/酸(중급)/す っぱい(중급), 짜다/咸(중급)/ (x), 싱겁다/淡(중급)/ (x)		미지근하다(x)/(x)/溫い
감정류 일5			부끄럽다(중)/害羞(4)/恥ずか しい, 졸리다(중)/困(4)/眠い・眠た い, 갓고 싶다・원하다(x)/要(동사)/ほ しい, 안타깝다(중급)/可惜(4)/残念 だ, 좋아하다(동사)/愛(동사)/好 きだ
합계 40	12	4	24

※ 초급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어휘 등급 및 품사를 명기하였으며, 각 언어의 등급표에 없거나 구 형태를 이루는 경우에는 'x'로 표시하였다.

<표5>에서 세 언어 가운데 일본어만 초급 단계인 형용사가 가장 많은데, 이는 일본어는 형용사의 활용이 동사의 활용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 교육 과정에서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명사문-형용사문-동사문’ 순으로 교재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형용사의 수가 적는데, 이는 중국어에서는 4급(중급 초반)에 다수의 형용사가 배치되어 중급 단계에서 중점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²³⁾

www.kci.go.kr

23) 실제로 신 HSK 4급 형용사는 96개로, 이는 초급 전체 형용사의 수량에 근접한 수치이다.

한국어만 초급인 형용사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곱다’, ‘부지런하다’, ‘착하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곱다’의 의미항목은 대체적으로 ①‘모양이 아름답다(얼굴이 곱다, 단풍이 곱다)’와 ②‘감촉이 고르고 부드럽다(피부가 곱다, 소금이 곱다)’로 대별된다. 유지연(2010)은 유의어인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를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특히 ‘곱다’는 사용 범위가 넓고 시각(단풍이 곱다), 촉각(소금이 곱다)이 동시에 관련되는 어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곱다’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어휘를 찾기 어려우므로, 발화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지런하다’와 ‘착하다’는 한국어에서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로 초급 어휘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부지런하다’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나 일본어 어휘는 각각 중급(5급)과 고급 어휘에 속한다. 특히 중국어의 ‘勤奮’은 ‘근면하고 열심이다’라는 두 의미가 복합되어 있고, 일본어의 ‘勤勉’은 주로 직업적 성실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어와 일본어의 두 어휘로는 한국어의 ‘아침부터 부지런히 청소하다’와 같이 일상 생활과 습관을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착하다’는 중국어의 중급(5급) 어휘인 ‘善良’ 혹은 ‘乖’과 대응될 수 있으나, 일본어의 어휘 목록에서는 대응되는 유사 어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초급에 해당되나, 다른 두 언어에서는 그 등급과 표현 형식이 상이한 어휘로는 ‘優しい’가 있다. ‘優しい’에 대응되는 한국어인 ‘상냥하다’는 TOPIC의 어휘 목록 및 초급 한국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응되는 중국어인 ‘溫柔’는 중급(5급)에 포함되어 교수-학습 시기가 상당히 나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優しい’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판단을 하는데 자주 쓰이는 형용사로, 초급 교재에도 관련 표현이 수록되어 있다.²⁴⁾

24) 『New 다이나믹 일본어1』에는 아래와 같은 예문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어 ‘老’는 ‘늙다’라는 의미항목 외에 ‘노련한, 원래의, 오래된’ 등과 같이 유사한 의미 항목을 가지는 형용사로 사용빈도도 상당히 높다.²⁵⁾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중국어와 달리 주로 부정적인 어기가 강하며 품사 역시 동사로 분류된다.²⁶⁾ 또한 중국어에는 ‘(키가) 크다’인 ‘高’의 반의어인 ‘矮’가 단독 어휘로 ‘키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는 단독 어휘가 아니라 구 형식으로 표현한다.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시고’, ‘싱거운’ 등의 미각 형용사와 관련하여, 한국어는 ‘달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급에 포함되고, 중국어의 경우는 ‘달다’에 해당되는 ‘甜’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급에 포함되어 동류 어휘에 대한 어휘 학습 단계가 대체로 일관된다. 이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짜다’와 ‘싱겁다’에 해당하는 어휘가 JLPT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어에서 ‘짜다’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しょっぱい’, ‘塩辛い’를 들 수 있는데, ‘しょっぱい’의 경우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며 구어적 표현이라는 제약이 있고, ‘塩辛い’는 ‘塩(소금)+辛い(맵다)’의 합성어²⁷⁾ 일본어에서 ‘짜다’는 기본 미각이라기보다는 ‘辛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여 초급 단계의 어휘 목록에는 빠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싱겁다’는 ‘味が薄い(맛이 옅다)’라는 구 형태로 표현된다.²⁸⁾ 이처럼 미각은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연관된 개념이기는 하나, 언어에 따라 기본으로 꼽는 개념이 다른데, 이는 미각 표현이 음식 등과 같은 문화적인 면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 세 언어 가운데 한 언어에서만 초급에 속하는 어휘에

A: 先生はどんな人ですか。(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B: 優しい人です。(상냥한 사람입니다.)

25) 상용 중국어 1500 고빈도 어휘 가운데 186위.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2008) 참고.

26)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늙다’는 ‘늙지 않은-젊은 상태’에서 ‘늙은 상태’의 복합적인 상태의 변화 과정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자동사로 구분한다. 윤현경(2003)참고.

27) 종래 일본어에서는 ‘辛い’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통합해 표현했으나, 근래 들어 염분이 강하게 느껴지는 미각은 ‘塩辛い’로 분화된 것이다.

28) ‘달다’를 의미하는 ‘甘い’에도 염분과 자극이 적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일본어의 맛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입에 자극적인 ‘辛い’와 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甘い’를 기본으로 하여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 목록을 만들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세 언어 모두 초급인 어휘나 두 언어에만 초급에 해당되는 어휘보다 개별 언어의 통어적 특징이나 사회·문화적 특징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적 언어에서 이들 어휘를 학습하거나 혹은 모어로 옮겨 오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하며, 어휘 학습 과정에서 두 국가와는 차별되는 문화의 일면과 사회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초급 어휘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어휘'로,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 개념을 포괄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에서 초급 단계에서 습득해야 하는 기본 개념과 어휘는 같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개념은 공통점도 많으나 사회나 문화, 역사 등에 따라 차이 또한 존재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일 삼국의 초급 단어 중 형용사를 수집하여 서로 간에 일치하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32개 어휘쌍 가운데, 세 언어 모두 초급 단계인 어휘쌍이 48개로, 초급 단계 어휘는 상당부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가깝다/멀다', '크다/작다', '높다/낮다' 등 기본적 물리 개념과 기본색상, '좋다/나쁘다', '재미있다' 등과 같은 판단은 세 언어 모두 기본적인 개념으로 꼽히고 있었다. 이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의 보편성을 반영한다 하겠다. 또한 '춥다/덥다/아프다'와 같은 감각, '기쁘다/슬프다/즐겁다'의 감정 역시 공통되는데 이는 인간의 신체가 가진 보편성과 삼국간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감수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동일 어휘쌍 내 각 언어의 형용사의 의미 항목이나 표현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개별 언어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

므로 이들 어휘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본 어휘임에도 언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쌍들이 있었다. 두 언어에서만 초급으로 꼽힌 어휘쌍이 44개였으며, 한 언어의 초급에만 존재하는 형용사도 40개였다. 이 중에서는 학습 단계와 교과서의 구성상 바로 윗 단계인 중급에 등장하는 어휘도 있었으나, 한 언어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는 고급이상의 어휘거나 직역이 불가능한 예도 있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판단 어휘도 한중일에서 기본적으로 꼽히는 것이 달랐으며, 신체적, 생리적인 특질과 연관되는 맛 관련 형용사도 한중일간 차이가 있었다. 감각기관은 공통될지 모르나 식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생겼다고 여겨진다. 특히, 형용사는 화자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여 추상적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이를 연구함으로써 그 사회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세 언어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두 언어 간 대조보다 다각적이고 폭 넓게 세 언어의 전반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삼국의 기초 어휘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개략을 보는 것이었으므로 개별 어휘에 대한 의미 분석 및 불일치 항목에 대한 배경 탐구 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한중일 세 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의미 분석 및 하위부류에 대한 의미망 구축 등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세 언어 속에 내재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언어 속에 내재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해 나가는 기초 자료 구축이 금후의 과제로 남는다.

< 參考文獻 >

- 고은숙, (2012), 《한일 양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도서출판 인문사.
 광일성, (2012),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법 연구 : 색채형용사, 미각형용사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19, 5-38.
 권희정, (2014), <한중 후각형용사의 구성 체계와 의미 확장 양상 : “고소하다/구소하다

- (香)와 “구리다(臭)”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Vol.51, 93-110.
- 김정남, (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 : 도서출판 역락.
- 손경호, (2007), <한일(韓日) 양언어(兩言語)의 미각어(味覺語) 고찰(考察) - 기본(基本)미각형용사(味覺形容詞)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Vol.62(2), 251-275.
- 왕단, (2005), <한·중 형용사 대비 연구 : 형태,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Vol.139, 5-33.
- 유지연, (2010), <외국인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의미 교육방안>, 새국어교육, Vol.84, 153-181.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 _____, (2003), 《형용사. 새국어생활》, Vol.13(2), 187-204.
- 조운경, (2009), <한중 미각형용사 “짜다, 싱겁다” 대비연구>, 중국조선어문, Vol.163, 20-24.
- 주송희, (2011), <한·중 공간형용사의 대조 방법론적 연구 : ‘깊다·얕다/深·淺’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Vol.34, 257-284.
- 이미숙·송정식, (2014), <한일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 분포 연구>, 일본어학연구, Vol.39, 139-155.
- 安小燕, (2012), <韓中味覺形容詞“辣”的對比研究>, 考試周刊, Vol.66.
- 方玉, (2013), <韓國學生漢語形容詞偏誤分析>, 長春 :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顧雅琦, (2014), <中日同形形容詞誤譯>, 考試周刊, Vol.39.
- 郭銳, (2002), 《現代漢語詞類研究》, 北京 : 商務印書館.
- 冉光, (2013), <以形容詞爲中心對中日語言情感表述的對比研究>, 科教文匯(上旬刊), Vol.11.
- 王靜, (2011), <漢日基本味覺形容詞的隱喻現象對比研究 : 以漢日口味詞爲例>, 日語學習與研究, Vol.1.
- 夏夜, (2006), <中日英文形容詞對比分析>, 重慶大學學報, Vol.4.
- 朱德熙, (1982/1998), 《語法講義》, 北京 : 商務印書館.
- 金善花, (2014), <次元形容詞「高い」の意味体系に關する日中對照研究>, 日本アジア研究 : 埼玉大學大學院文化科學研究科博士後期課程紀要, Vol.11, 165-181.
- 濱田美和·高畠智美·楊峰, (2012), <中國人學習者向け漢字教材の開發 : 日中同形の漢語形容詞>, 日本語教育方法研究會誌, Vol.19(2), 32-33.
- 三喜田光次, (2006), <日中兩國語間に於ける程度を表す形容詞用法上の相違について>,

外國語教育 Vol.32, 1-16.

入佐信宏, (2013), <韓國語教育における名詞および動詞・形容詞の分類について：日韓の韓國語教材の調査結果より>, 研究紀要 Vol.34(1), 69-85.

건국대학교언어교육원, (2005), 《한국어 1, 2》,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재편, (2005), 《KUJAP 日本語(3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 《재미있는 한국어 1, 2》,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8),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 北京 : 五洲漢風教育科技有限公司.

國際交流基金 (2006), 《日本語能力試驗出題基準(改訂版)》, 東京 : 凡人社.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2), 《Beginner's Korean 1, 2》, 서울 : 생각하는 백성. Seonmundaehakgyo

시사일본어사 (2010), 《민나노日本語 1, 2》, 서울 : 시사일본어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3), 《연세한국어 1-1, 2-2》,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오현정·아이자와 유카 외 (2012), 《New 다이나믹 일본어(개정판)》, 서울 : 다락원.

日本語學力テスト運營委員會 (1998), 《改訂 品詞別・A~Dレベル別 1万語彙分類集》, 東京 : 專門教育出版.

대한민국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88/site/contents/ko/ko_0352.jsp?selectId=41007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5987/201303/148379.html>

일본학생 지원기구

http://www.jasso.go.jp/statistics/intl_student/data13.html

< Abstract >

This paper is about basic adjective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KCJ.). KCJ constitute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that have been using the Chinese characters. It suggests that there are many commons in these three languages.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basic adjectives list of KCJ that was extracted from certified language test such as TOPIC, HSK and JLP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ot of difference in part-of-speech classification. It suggests that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depends on the language. Second, Although about 50% of the list was matched, the difference was seen in usage of the matched vocabularies-even in the use of fundamental physical concepts such as "large-small", "high-low". Third, there are many mismatched vocabularies in the list not only the words related to social relations but also the expressions about the taste.

Key words: Korean · Chinese · Japanese, Comparative analysis, Adjective, basic words, TOPIC, HSK, JLP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21.	2015. 1. 26.	2015. 2. 9.	2015. 2. 28.